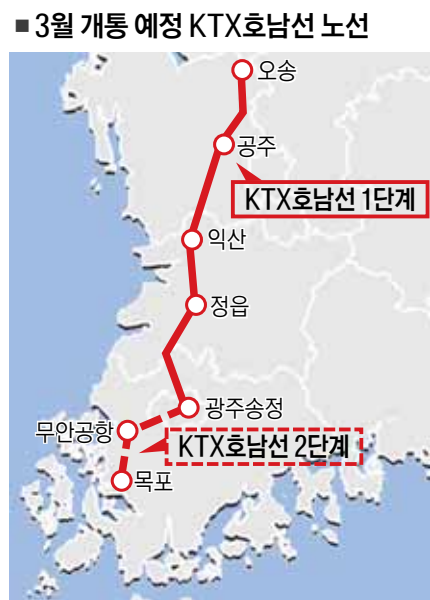


광주~서울 93분 ... '반나절 생활권' 교통·생활 혁명 온다



이달 중 완공 예정인 광주 송정역의 새 역사(驛舍).



KTX 호남선에 투입될 열차.

210분→159분→93분. 이는 KTX 광주~서울 구간 소요시간의 변화추이다. 호남고속철도(KTX)가 오는 3월 초 예정대로 개통된다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 셈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역~광주 송정역(총 연장 184.5km)의 KTX 호남선이 오는 3월 완전 개통되면서 교통과 생활상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속 60km에서 최고속도인 300km까지 단계적으로 속도를 높이면 서 신호·철로·시설 등의 상태를 정밀점검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영업 시운전에 들어간다.

호남선 완전 개통을 위한 점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호남선이 개통되면 현재 광주~서울 KTX 운행시간이 159분(2시간39분)에서 93분(1시간33분)으로 66분(1시간6분) 가량 단축된다.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근접 생활권에 접어드는 것. 또 수도권과 고속철 주변 지방도시 생활권이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당국은 호남선 개통으로 고속철도 하루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선이 개통되면 광주~서울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광주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광주·전남지역은 KTX가 정착하는 송정역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과 사회경제적 활동·문화 관광 등에서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경부선 개통 이후 전입자 대비 전출자 수가 4만2263명(2003년)에서 2만610명(지난해)으로 2만16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전남지역도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로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 수송이 쉬워지면서 대불산단 등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서남해안 교통의 중심축이 KTX가 정착하는 송정역으로 재편되고,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등 산업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선 개통에 따른 시·도민들의 기대도 크다. 이근선(37)씨는 "사업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해 서

울을 자주 오가는데, 호남선이 개통되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여정(51)씨는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멀어 쉽게 다니지 못했다. 이전 밀반찬도 마음대로 가져다 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호남선 개통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호남선이 개통되면 교육·의료·쇼핑 등 여러 부문에서 대구·부산 등에서 이미 발생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부산 등에서 KTX 개통 이후 교육·의료 부문 등에서 서울 집중도가 커지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X의 수송 능력 향상으로 지역 공장의 승객 감소와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지역민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우려된다.

회사원 정승현(37)씨는 "지금까지 건강검진 등을 받을 때 지역의 병원을 이용했는데,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생각이다"면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내 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선이 개통되면 광주는 물론 전남에도 관광객 증가 및 역세권 주변 발전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며 "KTX 개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전남·대구·울산·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4월 KTX호남선 일부 구간(서울 용산~서대문)과 KTX경부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이래 2010년 11월 KTX경부선 2단계 개통, 오는 3월 KTX호남선 1단계(오송~광주), 2017년 KTX호남선 2단계(광주~목포) 완공 등 순차적으로 전국 고속철도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충북 청원군 오송역~광주 송정역 호남선 KTX 1단계 공사 구간은 현재 81%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예산만 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정거장은 광주·익산·정읍·광주송정 등에 설치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송정역 중심 문화관광 발전 전망 광주·전남 인구 유입 효과 기대 물류 수송 쉬워 산업기반 강화 교육·의료·쇼핑 수도권 집중 우려

호남고속철 첫 투입 KTX 최고속도 시속 330km

올해 말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투입될 신형고속 차량(KTX산천2)은 좌석 공간이 현 KTX산천보다 넓고, 좌석 수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고속철도 차량의 공간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좌석의 무릎 공간을 5.7~7.5cm 넓히고(KTX대비 7.5cm, KTX산천 대비 5.7cm), 좌석 수도 410석(특실 33석, 일반실 377석)으로 편성당 47석 늘었다.

철도공단은 특히 고속차량에 항공기 객실 좌석 등받이 구조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고속차량의 가죽실, 부속실 등 사용이 적은 공간과 방송실, 승무원실 등 기능이 중복된 공간을 찾아내 실내공간을 최대한 확보

했다.

특히 편의시설로 객실 내 19인치 LCD TV 4대와 전 좌석 회전식 의자, 전원콘센트 설치, 수유실 1곳, 기저귀 교환대 2곳, 수화물칸 8개소를 갖추고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설비로 1편성 당 5석의 장애인석과 장애인 화장실 1개소, 휠체어 고정장치 2곳, 휠체어 보관소 1곳도 구비하고 있다.

외형은 탄환이 날아가는 형상을 모티브로 고속의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외부는 외안색을 적용해 포도의 풍성하고 신선한 느낌을 살려냈다. 실제 최고속도는 시속 330km, 상업운전은 최고 300km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오는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정읍역에서 광주 방향으로 10km 떨어진 KTX 호남선 1단계 구간. 곧게 뻗은 장대레일이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연상케 하고 있다. 헬기조종=광주소방항공대장 박창순, 이정곤 기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해 새날아침 더 큰 꿈과 희망이
황금빛 햇살 품고 찬란하게 솟아오르니

이 땅에 큰 소망이 되어
이웃을 위해 헌신하리라

작은 등불이 되어 기쁜 소식 전하며
행복 나눔에 앞장서리라

사랑의 꽃 가슴에 피워
가슴 저미는 눈물로 기도하리라

우리 함께 소통하며 연합하여
아름다운 세상 이루어 가리라

새해  맞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되자"
(전도서 4:7-12)

전라노회 (제 111회 임원)

2015 전라노회 목사·장로 신년하례회

일시 | 2015년 1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 하남은광교회당
주최 | 전라노회 장로 연합회
후원 | 전라노회
전라노회장 이순진 목사
장로연합회장 이종만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전라노회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47번길 64-11(응두동)
홈페이지 <http://p30.kosin.org>
T. (062) 574-1900, 010-2212-7690